

潛治 朴知誠의 삶과 행적 연구

김일환*

목 차

1. 머리말
2. 박지계의 가문적 배경
3. 박지계의 유년 시절과 학문 수련
4. 광해군의 亂政과 박지계의 新昌으로 낙향
5. 인조반정과 박지계의 정치활동
6. 박지계의 죽음과 추창
7. 맺음말

[초록]

潛治 朴知誠는 京華士族으로 서울 돈의문 밖 盤松坊에 기반을 둔 지역적 연고와 함께 정치적으로 서인 세력과 연결된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12년간 제천, 괴산에 옮겨 살다가 서울 本第로 귀경했지만 광해군의 집권기에 대북정권의 독주와 거듭되는 亂政을 피해 충청도 新昌으로 移居하였다. 그 사이 한동안 경기도 南陽으로 옮겨간 적은 있지만 종신토록 아산에서 살았다. 이후에 子姪이 뿌리를 내려 현재까지도 후손들이 아산에 살고 있다.

박지계는 젊어서부터 벼슬을 거부하고 평생 성리학 연구에 열중하는 도학자의 삶을 살았다. 그는 신창으로 옮겨와서도 오랜 지기인 權得己와 趙翼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성리학에 대한 학문연구에 몰두하였다. 한편 趙克善을 비롯한 많은 문인, 제자를 기르는 講學 활동도 쉬 없이 이루어져 17세기 牙山지역 유학의 전통을 세우고 기반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金長生, 張顯光과 함께 명망있는 山林處士로 존송되어 新政을 도울 宿儒로 조정에 초빙되었다. 하지만 反正이란 특수한 정치 상황에서 발생한 王統의 계승 문제와, 이에 따른 禮論과 服制 문제로 조정 중심뿐 아니라, 김장생 등 주류학자와 대립하였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됨에 따라 찬사와 질시를 동시에 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학문적 신념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그의 주장은 마침내 관철되어 元宗追崇 문제는 박지계의 의지대로 결정이 되었다.

박지계는 사후에 아산의 五賢書院, 곧 仁山書院에 배향되어 아산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 17세기 아산에 새로 入鄕하여 학문과 교육으로 아산지역의 유학적 전통과 기반을 확대

* 호서대 창의교양학부 교수, hwan1924@hanmail.net

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따라서 17세기 아산 儒學의 형성에 초석을 놓은 인물이 바로 잠야 박지계라 할 수 있다. 이런 전통은 아산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기에 앞으로도 계속 크게 조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박지계, 아산, 신창, 예론, 원종추승, 복제문제, 권득기, 조익

1. 머리말

潛治 朴知誠(1573(선조6)~1635(인조13))는 조선 중기 선조, 광해군, 인조대를 살다간 處士形 도학자였다. 함양박씨 가문에서 태어나 경화사족의 배경을 가지고 성장하였지만 어릴 때부터 과거를 통해 사환의 길로 나가기보다 주자 성리학 탐구에 몰입하였다. 일찍부터 학문적 능력에 대한 인정을 받았고 일평생 성리학 연구에 몰입하며 도학자로서의 일관된 삶을 살았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조선왕조가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시기였다. 선조대 동서분당으로 당쟁이 점차 격화되던 중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국가적 수난을 겪어야 했다. 곧이어 광해군 집정기의 정치적 갈등으로 빚어진 혼란과 亂政으로 정치세력 간에 첨예한 대립이 격화되자 이를 피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양반 사족들이 많았다.

박지계도 서울 盤松坊에서 성장하였지만 임란기에 堤川, 槐山으로 피난하였다. 또 광해군대에는 정치 혼란을 피해 가족을 끌고 新昌, 南陽으로 이주하였다. 하지만 성리학 탐구에 대한 학문적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 인조반정 이후 新政을 도울 소위 ‘林下宿德之士’로 인정되어 중앙관직에 발탁되었지만 元宗追崇과 服制문제로 갈등을 빚고 낙향하였다. 이후 수차례 상소를 올려 자신의 학문적 주장을 굽히지 않아 당로자들과 주류학자들에 의해 많은 비난과 모욕을 받았다. 하지만 마침내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종의 추승 문제는 박지계의 뜻대로 실행되었다. 이후 관직의 복귀가 수없이 권유되었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사절하고 ‘山林處士’로서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갔다.

지금까지 박지계 관련 연구는 여러 편이 확인된다.¹⁾ 그러나 대부분 그의

원종추송론과 禮論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고 그의 진솔한 삶의 자취나 흔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더구나 그와 가족들이 오랫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았고 학문연구와 교육활동에 몰두하던 牙山 지역은 그의 삶의 중요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장과와의 관련성은 깊이 있게 조망되지 못한 측면이 많다.

박지계는 광해조의 정치적 혼란에 쫓겨 아산에 이주했지만 이곳에서 趙克善을 비롯한 많은 문인,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마지막에는 아산에서 타계하였고 아산 옆치면에 있는 인산서원에 배향되었다, 따라서 17세기 아산 儒學의 형성에 초석을 놓은 인물이 잠야 박지계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박지계는 아산의 지역적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산에 남겨진 그의 자취를 추적하여 박지계의 도학적 삶이 어떠했는가를 밝혀 보려 한다.

2. 박지계의 가문적 배경

1) 친가

함양 박씨는 1세 朴善을 시작으로 고려조에 사환하다가 11세 朴翬이 1383년(우왕9)에 문과급제²⁾하여 출사하였는데 李芳遠과 同榜이었다. 이런 인연

1) 전병욱, 2013, 『潛治 朴知誠의 格物說』, 『민족문화연구』 61, 민족문화연구원; 김용흠, 2006, 『잠야(潛治) 박지계(朴知誠)의 효치론(孝治論)과 변동론』, 『역사와 현실』 제61호, 한국역사연구회; 신항수, 2007, 『잠야 박지계 사상의 역사적 성격』, 『조선시대 아산지역의 유학자들』, 지영사; 李賢珍, 2003, 『17세기 전반 啓運宮 服制論-金長生·朴知誠의 禮論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49,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史學科; 柳初夏, 2003, 『潛治 朴知誠의 사상과 현실대쟁』, 『道山學報』 9, 道山學術研究院; 禹仁秀, 1999,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 一潮閣; 禹仁秀, 1992, 『17世紀 山林의 勢力基盤과 政治的 機能』,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박종천, 1998, 『仁祖代 典禮論爭(1623~1635)에 대한 宗敎學的 再評價』, 『宗敎學研究』 17, 서울大學校 宗敎學研究會; 金永炫, 1996, 『朴知誠의 家系와 定遠君 追崇禮』, 『韓國史의 理解: 重山 鄭德基博士華甲紀念』, 景仁文化社; 李迎春, 1990, 『潛治 朴知誠의 禮學과 元宗追崇論』, 『청계사학』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2) 우왕 9년(1383) 癸亥榜 同進士 19위(29/33)로 급제하였다.

으로 조선조에 들어와 태종을 도와 그의 집권을 도왔고 원종공신으로 책봉되었다.³⁾ 호조참판, 전라, 경상감사, 대사헌을 거쳐 1418년(태종18) 형조, 병조 판서가 되었지만 세종 즉위 후 兵事를 上王에게 품의하지 않고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되어 泗川에 유배되었다가 죽임을 당하였다.⁴⁾ 아들 義孫, 義浦도 각각 남해, 광양으로 유배를 떠났다가 의손은 유배지에서 죽임을 당했다.⁵⁾ 이런 비극으로 함양박씨 가문은 한동안 침체에 빠졌는데 1458년(세조4) 박습의 후손들이 출사토록 허통되고⁶⁾ 박의손의 손자요, 박지계의 증조인 朴仲儉이 정종의 외손서⁷⁾가 됨을 계기로 世榮(1480~1552), 世茂(1487~1564), 世蕪(1493~1541)을 낳게 됨에 따라 가문을 부흥시킬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들 3형제가 기반이 되어 나중에 九堂公, 逍遙堂公, 明軒公派를 형성하는데 3형제가 각 지파의 중시조가 되었다. 世榮은 1504년(연산군10)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천거로 사산감역, 초계군수, 돈녕부정을 역임하였다. 박지계의 조부인 世茂는 1516년(중종11) 식년 생원시, 1531년(중종26)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안변부사, 그 뒤 내자시정·내섬시정·군자감정을 역임하였고 『童蒙先習』을 지어 자제들을 가르쳤다.⁸⁾ 世蕪은 1519년(중종14) 진사, 생원 사마시 양과에 합격하고 문과 대과는 형 세무보다 6년 앞서 1525년(중종20)에 급제하였다. 사헌부 지평, 弘文館典翰, 直提學과 예조참의, 병조참의, 이조참의를 차례로 역임했지만 早歲하였다.

이들 3형제는 서울 敦義門 밖 盤松坊 冷井洞의 月朗巖村에 있는 京第에서 나란히 함께 모여 살았다.⁹⁾ 이곳은 서대문 밖에 위치한 班村으로 이웃에 權

3)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0일 병인,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29일 경술

4)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 11월 26일 임신

5)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4월 19일 을사

6) 『세조실록』 12권, 세조 4년 4월 16일 계유

7)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8일 기유

장모인 전주이씨는 정종대왕의 딸이므로 仁川郡主로 책봉된다. 이후 장인 이관식은 溫陽郡事, 龍仁縣監을 역임하였다.

8) 이근호, 2016, 『박세무(朴世茂)의 생애와 경제론(經世論)』, 『尤庵論叢』 9, 충북대 우암연구소, 47~48쪽.

9) 傳言九堂公 與兩弟逍遙堂眞木亭 同居于敦義門外城下 月朗巖村 而姜士尙之第在宅後 姜相國之子 綱爲眞木亭孫婿, 『家傳雜錄』, 『咸陽朴氏永慕齋誌』, 310쪽.

이곳은 현 서대문구 강북삼성병원과 경희궁 사이 3단지 일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의 서울적



<그림 1> 輿地圖 古4709-78-v.1-3 규장각 소장

慄, 黃允吉, 姜士尙, 李惟侃 등 양반들이 밀집되어 사는 동네였다.¹⁰⁾

3형제의 아들들은 4촌간에 한집에서 함께 성장하였고 이 중에 영달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다. 먼저 세영은 3남 1녀를 두었는데, 장자 大立(1512~1584)은 李滉의 문인으로 1540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영의정 沈連源의 추천으로 持平이 되고 부제학, 함경도 관찰사, 형조, 이조, 호조판서를 거쳐 우찬성, 좌찬성이 되었다.¹¹⁾ 둘째 思立(1518~1545)은 출사하지 않았고, 셋째 希立(1523~1576)은 1546년(명종10) 사마시 양과에 합격하고 1558년(명종13)에 문과 급제하였다. 藝文館檢閱을 거쳐 文學·典籍·司諫院正言·司憲府持平 등을 역임하였으며, 1568년(선조1)에는 司憲府掌令에 임명되었다. 1574년(선조7)에는 성절사로 중국에 다녀왔다.

세무의 장자 素立(1514~1582)은 1555년(명종10)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

십자병원과 서대문우체국이 있는 일대는 조선시대에 서대문 밖이었던 지역으로, 경기감영이 있었던 자리였다. 현재 서울적십자병원 정문 옆 도로변에 이곳이 경기감영 터였음을 알리는 표지석이 있다.

10) 金佐明, 『歸溪遺稿』 卷下 記事 盤松舊第記事

11) 李廷龜, 『月沙先生集』 권43 左贊成贈領議政朴公神道碑銘

제하여 청요직인 승정원 注書가 된 뒤, 正字·修撰·이조 좌랑, 정랑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다시 홍문관 직제학, 동부승지, 성균관 대사성, 도승지, 경상감사, 대사헌 등 요직을 차례로 역임하였다.¹²⁾

둘째 應立(1517~1582)은 박지계의 부친으로 이웃에 사는 姜士尙(1519~1581)과 어릴 때부터 함께 講學하며 서로 떨어질 줄 몰랐다 한다.¹³⁾ 노수신, 최명길과도 친하며 1540년(중종35)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수학하였다.

박응립과 진사시 同榜인 인물 중에는 許曄, 朴淳, 柳希霖, 鄭滋, 奇大恒, 金汝孚, 楊士彦 등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명사들이 많다. 하지만 박응립은 거듭 대과에 실패해 오랫동안 사환치 못하다가 1561년(명종16, 45세)에 성균관 학생들의 추천으로 활인서 별제가 되고, 곧 금오랑, 상서직장이 되었다.¹⁴⁾ 1564년에 사도시 직장, 다시 軍器主簿, 사헌부감찰, 호조좌랑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1570년(선조3)에 황해도 松禾縣 현감으로 나갔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575년(선조8)에 通禮院引儀兼漢城府參軍으로 복귀하였다. 이듬해 庫僉으로 옮겨다가 1580년(선조13)에 다시 외직으로 나가 황해도 遂安 군수가 되었다. 1582년 4월 65세의 나이로 임소에서 순직하였다.

세옹의 장자 挺立(1522~1602)은 음직으로 출사하여 선공감정, 사직령, 장예원 장의 등을 역임하였다. 姜尙仁의 아들인 姜緇이 사위이다. 차자 名立(1531~1605)은 음직으로 출사하여 강음, 信川군수를 역임하고 임란 후 扈聖 原從功臣으로 책훈되었다.

2) 처가

박지계의 처가는 전주이씨로 장인 李惟侃(1550(명종5)~1634(인조12))은 정종의 아들 德泉君 李厚生의 5세손이며 박지계의 이웃에 살았다. 아버지는

12) 『선조실록』 16권, 선조 15년 4월 24일 신해

13) 『潛治集』 권6 墓碣誌 先府君墓碣

14) 『명종실록』 26권, 명종 15년 9월 10일 계유

증 이조참판 李秀光이며, 어머니는 行忠佐衛副司果 金彦禎의 딸이다. 12세에 고아가 되어 모친의 內弟인 閔純이 거두어 기르며 가르쳤다. 한동네에 살던 예조판서 權克禮가 이유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자식들(權守己, 權正己, 權得己)과 교류하게 하였다.¹⁵⁾ 한편 이유간은 한마을에 살던 李好閔·徐湑·姜綱과 더불어 서로 함께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막역한 친구가 되어 ‘眞率會’를 만들어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실패하고 1591년(선조24)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다. 임진란 중인 1593년에 知友인 병조판서 이항복의 추천으로 벼슬길에 나아가서 四山監役이 되고, 제천현감, 형조좌랑, 평양판관, 개성부도사, 천안군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1634년 동지중추부사로 치사하였다. 자식은 3남 3녀로 아들은 李景稷, 李景高, 李景奭이 있고 사위는 朴知誠, 尹漣, 崔徽之이다.¹⁶⁾

박지계의 처남 李景稷(1577(선조10)~1640(인조18))은 金長生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01년(선조34) 사마시에 합격해 진사가 되고, 1606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권지부정자에 올랐다. 이후 1609년(광해군1) 승문원주서 겸 시강원설서, 1610년 홍문관정자·봉교, 이듬해 전적·호조좌랑·수찬·병조좌랑 겸 지제교 등을 역임하였다. 1613년 병조정랑으로 승진했으나 李爾瞻이 득세해 계축옥사를 도모하자, 이에 연루된 徐湑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輸城察訪으로 나갔다가 파직되었다. 그 뒤 황해도도사로 복직되고, 다시 병조정랑이 되어 接伴官·賑恤從事官·平安道敬差官 등을 겸하였다. 1617년에는 回答使 吳允謙을 따라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1618년 폐모론에 반대해 사직하고, 약 5년여를 낙향해 지냈다. 이후 1622년 명장 毛文龍이 椴島에 주둔하자 백의종군했으며, 곧이어 철산부사가 되어 모문룡의 신임을 얻었고, 인조반정 이후 형조참의·의주부윤이 되었다.

15) 李明漢, 『白洲集』 권17 墓誌銘 李同知墓表

16) 金尙憲, 『淸陰集』 권34 同知中樞府事李公墓誌銘 並序; 李景奭, 『白軒先生集』 卷35 先考贈領議政行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府君行狀; 이근호, 2010, 「17세기 전반 京華士族의 인적관계망-《世舊錄》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8; 원창애, 2015, 「조선 왕실 종친 가문에서 사대부가로의 변모-德泉君派 李惟侃 家系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48, 경성대 남명학연구원.

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전라도절도사로 여산으로 가, 병사들을 모으고 난군 진압에 힘썼다. 그 공으로 가선대부로 품계가 오르면서 수원부사가 되었다. 1626년(인조4) 부총관·장례원관결사를 거쳐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도체찰찬회사·비변사유사당상이 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 때는 병조참판으로 왕을 강화도에서 호종하고 강화가 성립될 때 접반사로 활약, 환도 이후 호조참판이 되었다. 1629년 都體察副事로서 모문룡 병사의 동향을 파악하기에 노력했으며, 호조참판·경기도관찰사를 거쳐 1634년 도승지가 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는 부호군으로 비변사당상을 겸해 남한산성으로 왕을 호종했고, 화의가 성립된 뒤 호조판서가 되었다. 그러나 영의정 金瑬와의 불화로 일시 정직되었다가 다시 도승지·강릉부사·동지중추부사 겸 경도총관을 지냈다. 1640년 강화유수로 있다가 병으로 죽었다.¹⁷⁾

셋째 처남 李景奭(1595(선조28)~1671(현종12)도 김장생의 문인이다. 1613년(광해군5) 진사가 되고 1617년 증광별시에 급제했으나, 이듬해 인목대비의 폐비 상소에 가담하지 않아 削籍되고 말았다. 인조반정 이후 다시 시험을 보아 聖謫文科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부정자를 시작으로 청직으로 일컫는 검열·봉교로 승진했고 동시에 춘추관사관도 겸임하였다. 이듬해 이괄의 난으로 인조가 공주로 몽진하자, 승문원주서로 왕을 호종해 조정의 신임을 두텁게 하였다. 이어 奉教·전직·예조좌랑·정언·교리 등을 두루 거친 뒤 1626년(인조4)에는 湖堂에 선발되어 들어갔다. 또한 같은 해 말에는 이조좌랑·이조정랑에 올라 인사 행정의 실무를 맡게 되었다. 이듬해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체찰사 張晩의 從事官이 되어 강원도 군사 모집과 군량미 조달에 힘썼다. 이때에 쓴 『檄江原道士夫父老書』는 특히 명문으로 칭송되었다. 정묘호란 후 다시 이조정랑 등을 거쳐 승지에 올라 인조를 측근에서 보필하였다. 1629년 자청해 양주목사로 나가 목민관으로서의 실적을 올렸다. 그 뒤 승지를 거쳐 1632년에는 가선대부에 오르고 대사간에 제수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대사헌·부제학에 연달아 제수되어 인조를 호종해 남한산성에 들어

17) 金瑬, 『北渚先生集』 卷8 有明朝鮮國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行資憲大夫戶曹判書兼五衛都總府都總管忠敏李公神道碑銘

갔다. 이듬해 인조가 항복하고 산성을 나온 뒤에는 도승지에 발탁되어 예문 관제학을 겸임하며 「三田渡碑文」을 지어 올렸다. 이듬해 문관으로서 영예인 홍문관·예문관 양관의 대제학이 되었고, 얼마 뒤 이조참관을 거쳐 이조판서에 발탁되어 인사를 주관하였다. 1641년에는 청나라에 볼모로 가 있던 소현 세자의 貳師가 되어 심양으로 가, 현지에서 힘든 대청 외교를 풀어나갔다. 그러나 이듬해 엄금하던 명나라 선박이 宣川에 들어온 일이 청나라에 알려지자, 그 사건의 전말을 查問하라는 청나라 황제의 명을 받고 서북 지역으로 돌아왔다. 조선의 관련 사실을 두둔하느라 청나라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永不調用の 조건으로 귀국해, 3년 동안 벼슬에서 물러났다. 1644년에 복직,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좌의정을 역임한 뒤 이듬해 마침내 영의정에 올라 국정을 총괄하였다. 그러나 1646년에 효종의 북벌 계획이 李彦標 등의 밀고로 청나라에 알려져 查問事件이 일어나게 되었다. 청나라의 사문사는 南別宮에서 영의정 이경석과 정승·판서 및 양사(사헌부·사간원)의 중신 등을 모두 세워놓고 북벌 계획의 전말을 조사, 죄를 다스리고자 해 조정은 큰 위기를 맞았다. 이에 끝까지 국왕을 변호하고 기타 관련자들까지 두둔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 국왕과 조정의 위급을 면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청나라 사신들로부터 ‘대국을 기만한 죄’로 몰려 극형에 처해질 뻔했으나 국왕이 구명을 간청해 목숨을 부지하였다. 그러나 청나라 황제의 명으로 白馬山城에 위리안치되었다. 이어 다시 영부조용의 명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나 1년 남짓 廣州의 板橋와 石門에서 은거하였다. 그러다가 1653년(효종4) 풀려나 영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며, 1659년 영돈녕부사가 된 뒤 耆老所에 들어갔다.¹⁸⁾

18) 이은순, 1988, 「이경석의 정치적 생애와 三田渡碑文 시비」, 『한국사연구』 60, 한국사연구회; 이은순, 2004, 「이경석의 국정운영과 대외 사국인식」, 『조선시대사학보』 29, 조선시대사학회; 이성무, 2012, 「백헌 이경석의 생애와 행적」, 『영의정의 경륜』, 지식산업사.

3. 박지계의 유년 시절과 학문 수련

박지계의 부친 박응립의 첫 부인은 남양홍씨로 현감 洪潤先의 딸인데 부死하였다. 둘째 부인은 洪潤均의 딸로 두 사람은 사촌 간이라 한다. 초취 부인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재취 홍씨에게서 장자 朴知謙(1549~1623)이 출생하였다. 三娶인 전주이씨는 효령대군파의 지파인 陰平副守派의 監察 李珣(1498~1549)의 딸이다. 이씨는 5남을 출산하였는데 知讓(1562~1642), 知認(1565~1623), 知訓(1568~1620), 知警(1570~1640), 知誠(1573~1635)이다. 박응립의 동서로는 武人이면서 순천군수, 구성부사를 역임한 邊良佑¹⁹⁾가 있고 許曄의 아들이요, 허균의 형인 許籥(1551~1588)은 庶동서이다.

박지계는 부친이 황해도 松禾현감으로 재임하던 중인 1573년(선조6, 부친 56세) 9월 3일 관아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575년(선조8) 通禮院引儀兼漢城府參軍으로 전직할 때 서울 本第로 돌아왔다(3세). 이후 서울에서 성장하다가 부친이 호조정랑을 거쳐 1580년(선조13) 다시 외직인 황해도 遂安군수(63세)로 나가게 되자 따라갔다(8세). 이곳에서 9세에 痘瘡을 앓았고 10세인 1582년 4월 부친(65세)이 任所에서 순직하자 경기도 양주 神穴里 선산²⁰⁾으로 返葬해 모셨다.

다시 서울 본택으로 돌아와 성장하면서 선생을 통해 공부하며 독서에 매진하였다. 이 과정에 조부 박세무가 지은 『童蒙先習』과 『史記』를 읽었다. 선생이 唐詩를 가르치니 거부하고 논어를 읽었고 유교 경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때부터 15세까지 일과를 거르지 않고 열심히 공부에 정진하여 대인의 기상을 보였다 한다. 한편 또래의 師表가 되어 인목대비의 오빠인 金球와 종질 朴由一(4촌형 知言의 자) 등이 비슷한 나이인데도 머리 숙여 배웠다고 한다.

박지계는 이렇게 반송방 냉정동 月朗巖村에서 10년을 살며 공부하였는데,

19)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6일 을미, 『선조실록』 108권, 선조 32년 1월 20일 신축
아버지는 예조좌랑 邊偉이며 선조대 지중추부사, 지훈원원사, 포도대장 등을 역임한 무신 邊良傑이 형이 된다.

20) 현재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이다.

20세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모친을 모시고 堤川으로 피난하였다. 극심한 기근으로 고생하다가 1597년 무렵에는 다시 槐山으로 이거한 것으로 보인다.²¹⁾ 이곳에서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여가를 이용하여 『中庸』과 『大學』을 읽었다. 모친 전주이씨가 병환이 나자 극진히 간호하였고 1597년 7월에 타계하자 상례를 한결같이 朱文公의 『家禮』에 따라 행하였다.

『潛治先生年譜』를 보면 박지계가 혼인한 기록이 분명치 않다. 다만 29세인 1601년(선조34)에 장남 由近이 출생하는 것을 보아 1600년(선조33) 이전에 결혼한 것은 분명하다. 『연보』에 따르면 이 무렵 박지계는 우리나라 先儒로 牛溪 成渾과 栗谷 李珣를 尊崇하며 이들 문하에 나가 배우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 했다 한다. 그의 성리학 공부의 방향이 牛·栗로 확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임란이 끝나자 1604년(선조37) 박지계는 잠시 주거지를 괴산에서 5里 知警이 있는 인천으로 옮겼다. 하지만 얼마 안돼 서울 반송방 냉정동 京第로 돌아왔다. 임진왜란으로 서울을 떠난 지 12년 만에 귀경한 것이다.

1606년(선조39) 10월 박지계는 이조판서 許箴이 천거하여 王子師傅에 제수되었지만 사임하고 나가지 않았다. 곧 광해군의 집정이 시작되자 박지계와 가족들은 다시 주거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보』에는 1613년(광해5) 계축옥사 사건으로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재남과 친구인 아들 金球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1614년(광해6)에 新昌 小東面 水躡里(현 아산시 신창면 水長里)²²⁾로 이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21) 槐山이 박지계 가문과 어떤 연고가 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명종실록』에 백부 朴素立이 괴산에 있다가 서울로 소환되는 사실(『명종실록』 29권, 명종 18년 9월 18일 기사)과 광해군 대에 박지계의 만형 지겸과 조카 由元, 由渾이 亂政을 피해 괴산으로 낙향해 은거함을 볼 때 오래전부터 함양 박씨의 田莊이 있었던 것 같다.

박연호, 『朴知謙의 괴산 隱居와 愛閑亭』, 『尤庵論叢』 9, 2016, 130쪽 참조.

박지겸의 『愛閑亭記』에는 괴산에 처가의 옛 田莊이 남아 있고 임란 이후 춘가 몇 칸을 더 사들었다고 한다.

22) ‘水長里’라는 명칭은 1914년 水餘里와 長久浦里를 병합할 때 두 마을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붙인 것이다. 수장리는 본래 신창군 소동면에 속했다. 일제가 실시한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장구포리, 수여리, 수남리, 구평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수장리라 하고 아산군 학성면에 편입되었다. 1917년 학성면이 신창면으로 개칭됨에 따라 아산군 신창면 수장리로 개편되었고, 1995년 1월 1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아산군과 온양시를 통합하여 아산시로 개편되면서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가 되었다. 수장리는 남쪽에 낮은 구릉이 있고 이 주변으로 마을이 들어서 있다. 마을 북쪽에는 곡교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삼교천에 합류하는데, 천 주변으로는 넓은 충적대지가 조성되어

박지계의 장인 李惟侃이 쓴 『愚谷日記』를 보면 이유간이 1609년(광해1) 12월 30일 천안 군수로 부임할 때 이미 사위 박지계는 자기 가족뿐 아니라 두 형의 가족들과 함께 新昌에 내려가 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²³⁾ 따라서 광해군 즉위 전후로 해서 이미 신창으로 이주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신창을 택해 이주한 직접적인 이유나 계기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가 1607년(선조40) 11월에 趙翼과 新昌 元堂 新寺에서 만나 논어의 「子貢問貧而無諂」章을 토론하는 것을 보아 이 무렵 신창 水餘里(水踰里)로 낙향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²⁴⁾



<그림 2> 수장리(수여리)와 중방리, 서원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수장1리와 수장2리의 2개 행정리로 이루어졌으며, 자연마을로는 수장1리에는 무너미, 장구포, 수장2리에는 안골, 방죽안밭, 솥밭이 있다. 무너미는 곡교천의 물이 넘어 들어와서 '무너미'라 했다가 한자로 옮겨 '水餘里', 혹은 '水踰里'라 했으며, 장구포는 지형이 장구처럼 생긴 포구라 하여 붙은 명칭이다. 안골은 무너미 안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며, 방죽안밭은 안밭에 있는 방죽인 徐松堤의 안쪽이라는 뜻이다. 수장리는 동쪽으로는 염치읍 곡교리와 곡교천을 사이에 두고 있다. 서쪽으로는 남성리와 신달리, 남쪽으로는 온양4동의 배미동, 북쪽으로는 염치읍 중방리와 접해 있다. (『아산향토문화전자대전』)

23) 『愚谷日記』 己酉(광해군1) 12월 30일 晴, 監司竹瀝次, 靑竹載刷馬二匹, 次次出給, 昨到愁音全, 令高送簡于朴師傳家, 此朝傳答書...朴師傳未時許來到.

『愚谷日記』 庚戌(광해군2) 2월 초1일 晴, 朴師傳脫服後促食, 歸新昌.

24) 『潛治先生年譜』

4. 광해군의 亂政과 박지계의 新昌으로 낙향

1609년(광해군1)에 홍문관의 崔暉이 추천하여 翊衛司 左洗馬에 임명되고 書筵官을 겸하게 되었는데, 박지계는 謝恩肅拜한 다음 사직하였다. 이어 童蒙敎官에도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러한 박지계의 태도는 광해군 집정 이후 새로 등장한 복인정권이 보인 亂政으로 점차 서인 세력이 위기에 빠지는 정국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박지계의 집안이 실제로 큰 정치적 사건에 직접 연루된 일은 없었다. 다만 동서인 윤전의 부친인 尹安性(1542(중종37)~1615(광해군7))이 홍주목사에 재직 중 아들 尹滌과 함께 大北派가 소북파를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金直哉의 誣獄에 관련되어 파직당한 적이 있다.²⁵⁾

한편 제자 李義吉(1596~1633)의 경우는 조부 李效元(1550~1629)²⁶⁾이 小北 유영경의 심복이라는 이유로 삭탈관직되어 거제도도 유배되어 14년을

25) 『白軒先生集』 卷48 墓誌 兵曹參判坡陽君贈吏曹判書尹公墓誌銘

尹安性은 1572년(선조5)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583년(선조16) 伏兵將으로 여진족의 침입을 격퇴하는 데 공을 세웠다. 1589년(선조22) 尹卓然의 천거로 요직에 등용되어 1592년(선조25) 남원부사가 되었다. 같은 해 임진왜란이 일어나 난민이 官倉을 부수고 약탈과 살육을 자행하자, 단신으로 말을 달려 수십 명을 죽여 난을 진압하고 남원을 사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巡檢使 金命元의 從事官이 되어 용인에 진을 쳤다. 밤중에 순검사 등이 도망하자, 일주일 동안 말을 달려 남원에 돌아와서 전심전력으로 흠어진 군졸을 모아 왜적과 싸웠다. 이후에 안동판관과 숙천부사를 거쳐 다시 전주부사로 전직되었다. 그러나 금산에 침입해온 적군을 막지 못하고 전주의 官庫를 소각해, 많은 미곡을 소실시켰다는 죄로 파직되었다가 충주목사로 등용되었다. 1594년(선조27) 회령부사를 거쳐 이듬해 은성부사를 역임하는 동안 침입한 여진족 1,000여 명을 격파하고 선정을 베풀어, 1597년(선조30) 함경도 威鏡道巡撫御史 柳夢寅의 천거로 옷감을 상으로 받고 加資하였다. 1599년(선조32)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승정원 동부승지, 1601년(선조34) 우승지·경주부윤을 거쳐 이듬해 함경도병마절도사, 1603년(선조 36) 해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어 1608년(광해군즉위) 전라도 관찰사, 1610년(광해군2) 형조참판, 1612년(광해군4) 양양부사를 역임한 뒤 1613년(광해군5) 翼社功臣으로 책록되고 坡陽君에 봉해졌다.

26) 1584년(선조1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병조정랑·세자시강원사서·승지·한성부좌윤·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선조 말년에 복인이 대북·소북으로 나뉘어 정권쟁탈이 치열할 때 그는 영상 柳永慶의 소북파에 가담, 상소문을 올려 君父의 지친을 이간하려는 鄭仁弘의 흉모는 李爾瞻 등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 하여 대북파인 정인홍을 영변, 이이첨을 갑산에 유배시키고 세자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永昌大君을 옹립하려 하였다. 그러나 1608년 선조가 갑자기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여 대북파가 집권함에 따라 이듬해 그는 삭직되어 거제도도 유배되었다. 1623년(인조1) 인조반정으로 14년 만에 풀려나 인조반정이 있었던 그해 공조참판에 임명되었지만 사직하고 고향 청양에서 일생을 마쳤다.

보냈다.²⁷⁾ 이의길의 부친 李瀾(1571~1608)은 翰林으로 재직 중 부친에 연좌되어 삭탈관직되고 門外黜送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죽었다.²⁸⁾ 이 때문에 이정의 동생이자 박지계의 문인인 李灝(1591~1670)는 사환을 포기하고 불우한 생활을 하다가 유생의 신분으로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반정공신 2등에 녹훈되고 咸陵府院君으로 책봉되기도 하였다.²⁹⁾

趙錫馨(1598~1656)의 경우도 그의 부친인 趙希逸이 1613년 許筠의 옥사에 연루되어 理山에 안치되자 유배된 아버지를 따라 배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부친은 1619년 허균이 복주된 다음 방면되었는데 조석형은 1613년(광해군5) 폐모론이 일어나자 과거를 단념하고 박지계의 문하에서 학업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1612년(광해4) 4월에는 박지계와 각별하던 시인 權輶이 詩禍사건에 연루되어 고문당하고 慶源으로 유배형을 받고 도성 송인문을 나섰다가 길옆 민가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³⁰⁾ 그의 억울한 죽음을 접한 박지계는 자신을 알아주고 뜻을 같이한 사람이 徐思遠, 權輶, 李義吉 3인이라며 평생동안 가슴 아파하였다.³¹⁾

한편 유년기 친구며 서로 講學하던 金球는 계축옥사에 연루되어 부친 金悌男, 동생 金玗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 김제남이 죽자 두려움에 모든 친지들이 문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박지계는 혼자 弔問하였다. 친우 李命俊(1572~1630)도 계축옥사 때 庶弟인 李耕俊이 계축옥사의 起火者로 대북 세력에 의

27) 『광해군일기』 3권, 광해 즉위년 4월 25일 신사, 『광해군일기』 117권, 광해 9년 7월 4일 병인

28) 『광해군일기』 9권, 광해 즉위년 10월 13일 정묘

29)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3월 16일 병오

30) 『광해군일기』 111권, 광해 9년 1월 16일 임오

광해군 3년(1611)에 任叔英이 策問試에서 당시의 정사가 어지러움을 풍자하여 글을 지었는데, 내용이 매우 간절하고도 곱았다. 그러자 광해가 그 글을 보고는 몹시 노하여 榜에서 梁숙영의 이름을 빼도록 명하였다. 權輶이 그 소문을 듣고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 “宮柳는 푸르는데 꾀꼬리 필필 나는구나. 성안 가득 벼슬아치들 봄별에 상긋거리네. 조정에서 모두들 태평성대 하례하는데, 그 누가 布衣로 하여금 위태로운 말 하게 했나.” 하였다. 여기서 ‘궁류’는 대개 임금의 외척인 柳氏들을 가리킨 것이고 ‘포의’는 梁숙영을 가리킨 것이다. 광해가 이 시를 보고는 노하여 권필을 잡아다가 형신하고 북방인 경원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가는 도중에 사망한 것이다.

尹拯, 『明齋遺稿』 제43권 童蒙教官贈司憲府持平權公行狀

31) 『潛治集』 권6 祭文, 祭李方叔文

해 지목되어 처벌당하자 연좌되어 영덕으로 유배되었다.³²⁾ 김장생도 庶弟 金慶孫에 연루되어 이명준과 같이 국문을 당할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朴應犀가 부정하여 풀려나게 되자 바로 連山으로 낙향하였다.³³⁾

광해군대 집권 大北세력의 독주와 정치 혼란으로 서인들이 느낀 위기감은 대단한 것이었다. 특히 金直哉 사건이나 癸丑獄事는 연루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여서 많은 사대부들이 사환을 기피하고 지방으로 낙향하여 은거하였다.³⁴⁾ 이런 정국의 변화에 위협을 느낀 박지계 형제들도 모두 지방으로 이주를 결정하고 은거 생활에 들어갔다. 각자의 연고지를 따라 첫째 知謙은 괴산에 자리 잡고, 넷째 知訓은 충주로, 다섯째 知警은 인천으로, 나머지 둘째 知讓과 셋째 知認, 막내 知誠는 신창으로 移居하였다.

박지계가 이주한 신창의 수여리는 현 곡교천 중류에 위치한 마을로 范川(현 삼교천)과 아산만의 水路를 이용해 경기도 南陽과 인천, 서울로 쉽게 연결되는 교통이 편리한 장소였다. 이후 신창에서의 박지계 일가의 삶도 이 공간 속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편 수여리에는 박지계 일가의 農庄이 있어 박지계 일가가 직접 영농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³⁵⁾ 이런 경제적 기반은 친가나 외가, 아니면 처가의 재산이 상속된 결과로 보여진다. 3형제가 거느린 많은 가족이 생계를 의존할 정도면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박지계를 뒤이어 평생의 지우인 權得己도 1615년(광해7)에 관직을 버리고 박지계와 가까운 南陽으로 이주하였다.³⁶⁾ 權得己(1570(선조3)~1622(광해군

32) 『광해군일기』 67권, 광해 5년 6월 17일 갑진, 『광해군일기』 67권, 광해 5년 6월 22일 기유

33) 『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윤10월 18일 갑진

34)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3월 16일 병오

35) 『忍齋日錄』 제3 광해군 11년(1618, 무오) 9월 10일

同子必謁于 朴先生 【子必見過 余方未食 是時 金光義及汝厚來也 既食乃行 汝厚亦同逾嶺 而入縣 既到 則先生及由近 皆出打作所 因由近之二弟 進紅柿于內 余所進 只五十箇 子必百箇也 乃步往打作所 路遇由近 進謁于先生 乃勸勸灘下流浦邊村亭也...】

『忍齋日錄』 제3 광해군 12년(1619, 기미) 7월 20일, 『忍齋日錄』 제4 광해군 14년(1621, 신유) 9월 13일, 『治谷日錄』 제4 인조 9년(1631, 신미) 2월 25일, 『승정원일기』 46책 인조 13년 2월 20일 신축, 지금도 수장리에서는 수여리에 정착해 마을을 일군 사람들이 함양막씨 일가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은양문화원, 2000, 『은양아산 마을사』 1, 401쪽)

36) 『晚梅集』 附錄 家狀

14))는 유년기에 서울에서 박지계와 한 동네에 담장을 같이하고 성장한 친구였다.³⁷⁾ 1589년(선조22) 진사시에 합격하고, 1610년(광해군2)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예조좌랑이 되었다. 그 뒤 광해군이 모후인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영창대군을 살해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자 관직을 버리고 남양으로 낙향한 것이다.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독한 가난 속에서 굶주리고 고생을 하면서도 節操를 잃지 않고 대북정권의 거듭되는 사환 요청을 거부하며 오직 성리학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말년에 병이 깊어 泰安으로 옮겨 살다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두 집안은 世交가 깊어 權得己의 아들 중에 장자 權誥는 박지계의 3형 知讓의 사위가 되었고 5자 權認는 5형 知警의 사위가 되었다. 나이가 4자 權訖과 權認는 박지계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하여 사제관계가 되었다.

趙翼도 어려서부터 박지계와 평생의 벗으로 지내면서 마치 骨肉과 같은 정을 느끼는 관계였다.³⁸⁾ 계축옥사 이후 修撰직을 버리고 廣州로 낙향했다가 다시 신창으로 낙향하여 道高山 아래 茅屋을 짓고 자리를 잡았다.³⁹⁾ 조익은 박지계와 학문적 교류와 토론을 활발히 했을 뿐 아니라 서로 간에 발생하는 모든 대소사를 긴밀하게 의론하는 평생의 지기였다.

이 무렵 박지계는 권득기와 조익과 함께 활발하게 성리학을 講磨하며 수시로 편지를 주고받았고 성리학의 여러 주제에 대해 격렬히 토론하는 한편, 제자 양성을 위한 講學에도 열심히 종사하였다. 이 무렵 박지계는 자제들과 조카들 뿐 아니라 인근에서 찾아오는 李義吉, 趙克善, 李重馨, 趙送年, 閔光燾, 邊虎吉 · 邊麟吉 형제, 朴乃輝 · 朴載輝 형제, 閔祺壽 등을 가르쳤고 서울에 남은 재경 제자들과도 수시로 연락하고 왕래하며 활발히 교류하였다. 이때 李義吉은 조부 이효원의 유배와 부친 이정의 사망으로 한이 맺혀 맹렬히

37) 『潛治集』 권6권, 權重之墓碣誌 癸丑
知誠與君。隔壻生長。備審君之質異。君自幼明敏出衆。年十三四。曉達文理。已能博覽。一覽輒記。未及勝冠。遍記諸子書歷代史。殆無不盡。

38) 『浦渚集』 제8권, 筭, 因兵曹參判崔鳴吉筭子。論典禮筭。[再筭]

39) 『광해군일기』 175권, 광해 14년 3월 17일 계축
趙翼爲副修撰。【翼退居歸田里, 時輩欲假示公道, 慕其名, 累拜館職。皆不就】

공부에 몰두했다고 한다.⁴⁰⁾

당시 아산지역에서는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황, 이언적 등 五賢을 문묘에 배향하자는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오현의 배향을 요청하는 儒林의 요청은 선조대 말부터 활발해 지지만 광해군 집정 초기에는 전국 단위로 문묘 배향과 서원건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충청도에서는 진천에 거주하는 유생 吳暉(1564~?)가 1608년(광해 즉위년)에 오현 배향을 주장하였다.⁴¹⁾ 성균관 생원이던 박지계 五兄 朴知警도 성균관을 대표해 오현 배향을 주장하였다.⁴²⁾ 이때 나주에는 오현서원이 이미 설치되어 나주 유생들이 사액을 요청⁴³⁾하고 이후 曹植까지 함께 배향하자고 요구할 정도였다.⁴⁴⁾

이런 사회적 요구가 왕성하던 1610년(광해2)에 아산의 五賢書院이 세워졌다. 아산의 사족들과 신창, 온양의 유생들이 힘을 모아 설립되었는데 당시 아산현 小西面 瓦川(기와내) 상류에 위치하고 있었다.⁴⁵⁾ 趙克善이 박지계를 왕래하며 오현서원을 찾았을 때는 서원이 설립된 지 13년이 된 1623년(인조1)이었다. 그 터를 감아 도는 주위의 풍경이 아름다워 조극선은 이곳을 勝地라고 했다. 五賢書院이 설립될 때 박지계도 신창에 살고 있어 설립에 관계했는지는 지금 문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포저 조익이 서원의 축문을 작성한 사실을 보아 이들이 일정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여 진다.⁴⁶⁾ 더구나 박지계는 1630년(인조8) 12월 신창 수여리에서 곡교천 넘어 미주 보이는 아산 中方里로 이사하였다.⁴⁷⁾ 이곳은 오현서원과 지척인 장소로 여기

40) 『忍齋日錄』 제4 광해군 14년(1621, 신유) 9월 13일

又言有李義吉自憤爲學甚篤 蓋今被竄人李孝元之孫 而行遠叔父 察訪公知讓之壻云

41) 『광해군일기』 7권, 광해 즉위년 8월 28일 임오

42) 『광해군일기』 25권, 광해 2년 2월 26일 임신

43) 『광해군일기』 24권, 광해 2년 1월 27일 갑진

44) 『광해군일기』 24권, 광해 7년 9월 22일 을미

45) 『忍齋日錄』 제5 인조 1년(1623, 계해) 윤10월 11일

行到邑里前路 遇見姜座首滄氏 逾縣南峴 望見書院院宇 遂馳到書院 即縣小西面瓦川上流也 本縣士子與溫新數邑人 創設書院 以享東邦五賢也 其基址周廻山水之勢 頗是勝地也 余敬入瞻祠宇 則殿門鎖鑰 不可開 召院直不在 乃拜于門外階上而退 前山之趾川水瀦爲淵 壓水 作一小屋 殊奇翫也

46) 『浦渚集』 제29권 牙山五賢書院祝文, 『沙溪先生遺稿』 卷4 書 答士深

『西齋集』 卷5 雜著 牙山鄉校答大學文

47) 『潛治先生年譜』

『治谷日錄』 제4 인조 9년(1631, 신미) 2월 25일

서 종신토록 살다가 별세하였다.

하지만 아산에서의 삶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 1619년(광해11)은 임진왜란 이후 전례가 없는 대흉년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⁴⁸⁾ 그 결과 이듬해 봄에는 혹독한 기근이 들어 굶어 죽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났다.⁴⁹⁾ 역병까지 돌아 백성들이 서로 잇달아 사망하였다. 賑濟廳마저 혁파된 뒤라 도로에서 걸식하고 돌아다니면서 굶어 죽은 자들의 쌓인 시체가 겹겹이 포개져 있어 그 참상을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였다.⁵⁰⁾

충청우도는 기근이 더욱 혹심해 박지계 일가도 窮困함을 이기기 힘들어 다른 곳으로 긴급 피난하기로 결정하였다. 처음에는 청주 金井倉 옆으로 옮겨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기도 南陽으로 옮겨가기로 최종 결정되었다.⁵¹⁾ 하지만 그곳에서 생활도 편하지 않아 남양의 살림집은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주인과 나누어 거주한 것인데 시기는 분명치 않지만 화재로 불타 남은 것이 없이 모두 소실된 적이 있었다. 그 까닭은 주인과 원수진 사람이 방화를 한 때문이었다.⁵²⁾ 더구나 이듬해 박지계 집에 癘疫이 돌아 그와 가솔들이 병마에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⁵³⁾ 1622년(광해 14) 겨울에 박지계는 다시 신창 수여리로 옮겨올 것을 계획하였다.⁵⁴⁾ 한편 당시 정국은 더욱 악화되어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었다. 박지계는 ‘世變之事’를 우려하여 자신이 평생에 걸쳐 저술한 文藁를 제자 조극선에게 모두 맡겼는데, 후 見失의 우환이 있을까 두려워해서였다.⁵⁵⁾

二十五日 過候 朴先生 宿于狸谷 【晨發至要路院 余先驅 到牙山中方里 朴先生新卜之地 先生方有感寒之疾 由寅出見 引入寢室 陪晤 既朝飯 行遠自水餘至 蓋留舊庄治農也...先生新構未完 方借居民舍 蓋占基高爽後及左右依山 前臨長浦 遠瞰列岫 眞勝地也...】

48) 『광해군일기』 144권, 광해 11년 9월 2일 신사

49) 『광해군일기』 149권, 광해 12년 2월 1일 기유

50) 『광해군일기』 149권, 광해 12년 6월 11일 정사

51) 『忍齋日錄』 제3 광해군 12년(1619, 기미) 10월 12일, 『忍齋日錄』 제3 광해군 12년(1619, 기미) 10월 19일.

52) 『忍齋日錄』 제5 인조 1년(1623, 계해) 11월 2일.

朴先生南陽所居家 火盡燒 無餘物 甚可驚歎 蓋聞僦居于他人之舍 與主人分舍以居 厥主人有仇 爲所燕云

53) 『忍齋日錄』 제4 광해군 13년(1620, 경신) 9월 18일, 『忍齋日錄』 제4 광해군 13년(1620, 경신) 9월 19일.

54) 『忍齋日錄』 제4 광해군 15년(1622, 임술) 12월 12일.

5. 인조반정과 박지계의 정치활동

1623년(인조1) 仁祖反正은 박지계와 가족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서인세력이 반정을 주도함에 따라 박지계의 친지 중에는 李貴, 崔鳴吉이, 제자들 중에는 李澣, 元斗杓, 洪振文이 반정 주도 세력에 참여하여 각기 정사 공신 2등, 3등으로 책봉되었다. 이런 정치적 변화로 지방에 은거하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 중앙으로 등용되었다.⁵⁶⁾ 박지계도 신정권에서 일할 만한 인재로 천거되었다.⁵⁷⁾ 그는 학문이 독실한 재야에 묻힌 老成宿儒로 인정되어⁵⁸⁾ 인조의 부름으로 받고 상경하여⁵⁹⁾ 4월 20일에 司圃⁶⁰⁾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상소로 사직하자, 다시 하루 만에 사헌부 持平을 제수받았다.⁶¹⁾ 이때 박지계는 餅峴⁶²⁾(지금의 大峴, 이화여대 앞 고개)에 거주하였는데, 병현도 盤松坊의 한 동네였다.⁶³⁾

하지만 박지계의 사환은 녹록치 않았다. 왕통의 계승 문제를 예학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조정 대신들과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사계 김장생의 주장과 상충되었기 때문이다. 그 계기는 반정이 성공하고 이 사실을 생부인 정원군의 사당에 고할 때 인조가 祝文에 정원군을 아버지라고 쓸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였다. 인조와 功臣들은 당연히 정원군을 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을 아들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稱考稱子說) 하지만 朝臣들은 김장생의 견해를 따라 인조가 조부인 선조의 대통을 이었으니 선조가 아

55) 『忍齋日錄』 제4 광해군 15년(1622, 임술) 12월 16일.

56) 『忍齋日錄』 제5, 인조 1년 4월 26일.

이때 趙翼은 정랑으로 등용되고 그 부친 趙瑩中은 보은 현감에 제수되었다.

57)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3월 26일 병진

58)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4월 12일 신미

59) 『承政院日記』 1책 인조 1년 4월 13일 임신

傳曰, 予在閭邸, 聞張顯光·朴知誠, 以老成宿儒, 久居林下, 欽思敬慕, 未嘗少弛于中, 予欲共理國事, 以駕轎召來事, 下諭于監司, 此外林下宿德之士, 亦爲廣求以啓.

60)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4월 20일 기묘

61) 『承政院日記』 1책 인조 1년 4월 21일 경진

62) 『承政院日記』 1책 인조 1년 4월 25일 갑신

朴知誠, 家在餅峴, 請來之頃, 日勢已暮, 決不可及云

63) 朴長遠, 『久堂先生集』 卷16, 盤松坊新居上櫟文

버지가 되고 정원군은 백숙부로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叔姪論) 김장생은 ‘王朝禮’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제왕의 정통은 혈통적 관계가 여하하던지 간에 왕위를 계승하면 명분상 부자의 도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지계는 稱考稱子說를 주장하며 ‘왕실의 예도 일반인의 예와 다르지 않으며 아버지 자리가 없이 바로 할아버지를 잇는 宗統은 없다. 정원군으로 하여금 선조와 인조 사이를 잇게 해 대통을 바로 세워야 한다. 따라서 정원군을 大院君으로 추존하여 종묘에 배향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⁶⁴⁾ 그러자 衆論은 그의 주장을 해괴하게 여기고 인조에 영합한다고 비난하였다. 박지계는 사직하고 南陽으로 내려왔다.⁶⁵⁾ 5월 10일 박지계를 다시 불러 지평으로 임명하자 김장생(76세)과 함께 인조를 알현하였다. 여기서도 박지계는 私廟문제를 거론하며, 나아가 인조에게 주자서 강독을 권유하였다.⁶⁶⁾ 하지만 이 문제는 조정 衆論과 대립되고 특히 김장생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해 5월 29일 다시 산림을 초빙하기 위해 조정에서 성균관 司業의 벼슬을 신설하고 박지계를 임명하였으나 상소를 올려 사면해 주기를 청하면서 나아가지 않고⁶⁷⁾ 지난번의 견해를 거듭 주장하였다.⁶⁸⁾ 인조가 거듭 출사를 권유하며 주장에 入參할 것을 요청하였지만⁶⁹⁾ 박지계는 병을 핑계하며 출사를 거부하였다.⁷⁰⁾ 다시 영월군수로 임명하였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1524년(인조2) 2월에 李适의 난으로 국왕이 공주로 피난하고 행재소에서 박지계, 김장생을 부르자 扈從을 명분으로 인조를 만나 현안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였다.⁷¹⁾ 그해 4월 박지계는 남양에서 신창 수여리로 다시 이사하였

64) 『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7월 1일 기축

65) 『承政院日記』 1책 인조 1년 4월 26일 을유

持平朴知誠上疏。大概，辭職事。入啓。答曰，勿辭。速爲出仕，以副予望。

66) 『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5월 10일 기해

67) 『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5월 29일 무오

『承政院日記』 2책 인조 1년 7월 2일 경인

京畿監司書目，南陽呈以司業朴知誠上疏上送事。答曰，勿爲辭避，調理上來，以副予望。

68) 『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7월 1일 기축

69) 『承政院日記』 2책 인조 1년 7월 11일 기해

70) 『承政院日記』 2책 인조 1년 8월 27일 을유

忠清監司書目，刑曹參判李安訥，司業朴知誠病重，上去不得事

71) 『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2월 17일 신축

다. 4년 만에 신창으로 귀환한 것이다.

박지계의 주장에 동조하기 위해 인조 2년 9월 13일 제자인 경릉참봉 李義吉이 大院君을 추송하기로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의 주장은 스승 박지계를 동조하여 대원군을 하루속히 종묘에서 제사를 받게 하자는 것으로 ‘전하의 종묘는 전하의 父·祖·曾·高를 위해 세운 것이다. 따라서 전하의 아버지로서 전하의 종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치는 천하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⁷²⁾ 이렇게 대원군의 호칭과 추송문제는 사계와 잠야 학파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갈등을 빚었다.⁷³⁾ 이러한 사이에 박지계는 1525년(인조3) 3월에 한식 제사를 위해 입경하여 여관에서 5형과 조익이 바뀌가며 찾아와 밤새도록 토론하고, 제자 元斗樞도 와서 자고 갔다.

2차 논쟁은 1626년(인조4) 인조의 생모 계운궁 구씨가 사망하자 服制문제가 다시 거론된 결과였다. 인조는 자신이 상주가 되어 3년 상을 거행하려 했다. 하지만 조신들은 대원군 부인의 예에 맞추어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도 김장생은 계운궁이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1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고, 박지계는 어머니이므로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것이었다.⁷⁴⁾

1528년(인조5)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斥和疏를 올렸다.⁷⁵⁾ 1628년(인조6) 失火로 집에 불이 났는데 박지계의 침실만 화마를 피했다. 박지계는 1630년(인조8) 12월 아산 中方里로 이주하였다. 『연보』에는 그 이유를 신창의 民風이 이름답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연유는 알 수 없다. 중방리에 마련한 신 주거는 이듬해 2월 25일 조극선이 방문할 때까지 가옥이 완성되지 못해 박지계 가족은 이웃집을 빌려 살고 있었다. 새 집터는 자리가 높고 시원하며 뒤에는 좌우로 산이 있고 앞에는 長浦가 가까이 있으며 멀리 보면 산굽이가 펼쳐져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한다. 곡교천 넘어 수여리에 있는 옛 농장은 자식들이 살며 농사를 지었다.⁷⁶⁾

72) 『인조실록』 7권, 인조 2년 9월 13일 갑자

73) 『인조실록』 7권, 인조 2년 10월 23일 갑진

74) 『潘治集』 권1, 擬上疏 丙寅

75) 『潘治集』 권3, 斥和疏 丁卯

76) 『治谷日錄』 제4, 인조 9년 2월 25일, 『治谷日錄』 제4, 인조 9년 8월 24일

3차 논쟁은 정원군 추송문제인데 계운궁의 탈상이 이루어진 1628년(인조 6)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추송 논의는 공신들인 이귀, 최명길⁷⁷⁾이 주도했다. 박지계 제자인 金克亨⁷⁷⁾과 이중형⁷⁸⁾은 상소하여 대원군을 종묘에 모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추송논쟁은 조신들의 반대와, 성균관 유생들의 空館(동맹 휴업) 등 격한 반대를 불러일으켜 추송론을 주장하는 박지계를 趙綱은 鬼怪蓼蟲이라고 비난하였다.⁷⁹⁾ 이에 반발해 박지계의 문인 변호길과 이중형이 조경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리며 반발했다. 성균관 학유 許穆(1595~1682)은 박지계를 儒籍[靑衿錄]에서 삭제하는 수모를 주었다. 이 때문에 박지계 제자인 변호길, 조극선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다.⁸⁰⁾

하지만 인조는 1631년(인조9)에 정원군 추송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추송론자인 이귀를 이조판서에, 최명길을 예조판서에 임명하고 정원군 추송을 강행하였다. 추송도감을 설치하고⁸¹⁾ 정원군의 묘를 章陵으로 고치고 明에도 알려 정원대원군을 元宗大王으로, 개운궁 구씨를 仁獻王后로 정했다. 1635년(인조13) 3월에는 원종 내외의 신주를 종묘에 모셨다. 조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조는 원종추송을 성공시킨 것이다.

추송론이 국왕의 뜻대로 관철되자 인조는 이 문제에 공훈이 큰 박지계를 사헌부장령으로 임명하고 말을 보내 출사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박지계는 사절하였고 다시 내섬시정⁸²⁾으로 임명했지만 이것도 나가지 않았다. 반면에 이귀가 이조판서로 있기에 사환이 막혔던 제자들이 出仕하는 길이 열렸다. 진사 변호길과 변인길 형제들이 차례를 나누어 金吾郎으로 발탁되었다. 이귀는 박지계를 경연관으로 임명할 것을 추천하였다. 1633년(인조11) 1월 박지계를 사헌부집의검성균관사업에 임명하였다. 이때 새로 최명길이 이조판서가 됨에 따라 박지계의 2형 지양이 工部郎, 內資主簿,⁸²⁾ 5형 知警이 義盈主簿가

77) 『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10월 23일 무진

78) 『인조실록』 21권, 인조 6년 6월 3일 임진

79) 『燃藜室記述』 제22권 元宗故事本末

80) 『인조실록』 25권, 인조 9년 9월 18일 기축, 『숙종실록』 3권, 숙종 1년 4월 10일 무술

81) 『인조실록』 26권, 인조 10년 2월 24일 임진

82) 『승정원일기』 36책 인조 10년 4월 8일 을해

되었다가 곧 軍資判官이 되었다. 지경의 사위인 변호길(변호길)이 금오랑에서 대간의 탄핵을 입어 파직되자 문인 李重馨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갔다.⁸³⁾

그해 겨울 박지계에게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 가장 촉망하던 애제자 李義吉이 겨우 38세의 나이에 사망한 것이었다. 상실감이 너무 커서 박지계는 통곡하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⁸⁴⁾ 이의길의 사망은 潛治學團에도 큰 충격을 주어 박지계의 子姪들과, 문생이며 사위인 閔光燾는 科試에도 나가지 않았다.⁸⁵⁾ 그해 지기였던 李貴도 세상을 떠났다.⁸⁶⁾

6. 박지계의 죽음과 추창

1633년(인조11)에 들면서 박지계의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그해 6월말부터 박지계는 머리 뒤에 종양을 앓았다. 크기가 개암(榛子) 열매만큼이나 되었고 증세도 심각했다.⁸⁷⁾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제자 洪振文, 李澥, 洪振禮 등이 각자 수십 필의 布을 내어 腫患에 좋은 약을 사들이고, 우황 등 시골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약을 다량으로 구매했다. 변호길과 元斗樞는 문씨 성을 가진 腫醫를 데려가고 이조판서 최명길은 文醫에게 가서 치료토록 권유하는 한편 힘써 많은 약물을 구해 주었다. 이런 노력이 주효했는지 다행히 건강은 회복되었다.⁸⁸⁾

1634년(인조12) 1월 박지계는 인조가 食物을 내려준 것에 사례하고 성균관 司業을 사절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윤8월 또 성균관 司業에 임명하고 다시 司憲府執義兼司業에 임명하며 상경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27일에 통정대

83) 『潛治先生年譜』

84) 『潛治集』 권6 祭文 祭李方叔文 癸酉

85) 『潛治先生年譜』

86) 『인조실록』 28권, 인조 11년 2월 15일 정축

87) 『治谷日錄』 제5, 인조 11년 7월 1일.

晴風 洪文則貽書 【文則與季立貽書言 昨夕溘行遠兄弟二十九日書 潛治先生自念前三四日腦後髮際有腫大如榛子 念二日以後 日漸浮大 邀許任施經絡針 灸騎竹馬穴 皆不見效 症勢頗重云云

88) 『治谷日錄』 제5, 인조 11년 7월 17일.

부승정원동부승지겸 경연참찬관에 임명받았지만 사직하였다. 9월에 장인 李惟侃이 사망하여 처남 이경직이 疑禮를 묻자 대답하였다.

1635년(인조13) 6월 癘氣로 불편하여 고통을 당하였다. 7월 13일에 正寢에서 考終하였다. 조극선은 14일 스승의 부고를 받자 먼저 통곡을 거듭하였다. 내용은 선생이 초 10일에 발하여 13일 申時에 별세했다는 소식이었다.⁸⁹⁾ 부음이 京鄕에 전달되어 문인, 제자, 친지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죽음의 계기는 초9일에 둘째 아들 由淵의 3살 난 아이가 죽었는데 다음날 선생이 그 사실을 알고 놀라움과 걱정을 하다가 그것이 원인이 되어 胃腹이 아프고 痰喘이 막혀 사망했다는 것이다.⁹⁰⁾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다. 박지계는 평일에 體貌가 장대하였다. 그런데 小斂때 浮氣가 일어 시신이 더욱 불어났다. 크고 긴 관을 짊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상, 하관을 연장하여 이어 붙여 만들고 나중에 改棺하기로 하였다.⁹¹⁾ 17일 부고를 받은 제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⁹²⁾ 18일 入棺을 하고 밤에 成殯을 하였다. 관이 너무 커 관을 채우는 의복의 수가 너무 많아 걱정을 했다.⁹³⁾ 19일 成服을 하였다. 趙克善과 權士吉, 洪振文, 元斗樞, 閔祺壽, 李迪, 金克亨, 李涵, 李漢 9인이 옛 법에 따라 吊服을 입고 加麻之禮를 올리는데 白布로 巾을 하고 熟麻로 環紼를 하였다.⁹⁴⁾ 부음이 조정에 전달되자 인조는 박지계가 일찍이 侍從을 지냈다 하여 별도로 부의를 보내고, 충청도 감영으로 하여금 造墓軍을 내려 주도록 하였다.⁹⁵⁾

장지는 瑞山으로 初葬했다가 9년 후 1643년(인조21) 청주 남면 八峯山 남쪽 等等里(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리)에 이장하였다. 이때 이유간의 딸인 부인 전주이씨가 사망해 함께 안장한 것이다. 처남인 李景奭과 제자 元斗杓, 道伯, 守승, 문인, 친척 수백 명이 참례하였다. 사후에 가선대부 이조판서로

89) 『治谷日錄』 제6, 인조 13년 7월 14일.

90) 『治谷日錄』 제6, 인조 13년 7월 15일.

91) 『治谷日錄』 제6, 인조 13년 7월 16일.

92) 『治谷日錄』 제6, 인조 13년 7월 17일.

93) 『治谷日錄』 제6, 인조 13년 7월 18일.

94) 『治谷日錄』 제6, 인조 13년 7월 19일.

95) 『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7월 22일 경오

증직되고, 1668년(현종9) 별세 후 33년 만에 아산 인산 五賢書院에 배향되었다. 1740년(영조16) 제자 金克亨의 증손자인 영의정 金在魯의 건의로 文穆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았다.⁹⁶⁾

7. 맺음말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해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潛治 朴知誠는 서울 盤松坊에 기반을 둔 京華士族으로 지역적 연고와 함께 정치적으로 서인세력과 연결된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12년간 제천, 괴산에 옮겨 살다가 서울 本第로 귀경했지만 광해군의 집권기에 대북정권의 독주와 거듭되는 亂政에 몸을 숨기기 위해 신창으로 移居하였다. 그 사이 잠시 南陽으로 옮겨간 적은 있지만 종신토록 아산에서 살았다. 이후 子姪이 아산에 뿌리를 내려 현재까지도 오랫동안 후손들이 살고 있다.

박지계는 젊어서부터 벼슬을 거부하고 평생 성리학 연구에 열중하는 도학자의 삶을 살았다. 그는 신창으로 옮겨와서도 지기인 權得己와 趙翼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성리학에 대한 학문연구에 몰입하였다. 한편 조극선을 비롯한 많은 제자를 기르는 講學 활동도 쉽없이 이루어져 17세기 牙山지역 유학의 전통을 세우고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김장생, 장현광과 함께 명망있는 山林處士로 존송되어 新政을 도울 宿儒로 초빙되었다. 하지만 反正이란 특수한 정치 상황에서 발생한 王統의 계승 문제와, 이에 따른 예론과 服制 문제로 조정중신과 김장생 등 주류학자와 대립하였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됨에 따라 찬사와 질시를 동시에 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학문적 신념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그의 주장은 마침내 관철되어 원종 추숭문제는 박지계의 의지대로 결정이 되었다.

96) 『영조실록』 52권, 영조 16년 11월 20일 정해

한편 박지계는 17세기 아산에 새로 入鄕하여 성리학 연구와 강학 활동으로 아산지역의 유학적 전통과 기반을 넓히고, 그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따라서 17세기 아산 儒學의 형성에 초석을 놓은 인물이 바로 潛治 朴知誠라 할 수 있다. 사후에 오현서원, 곧 인산서원에 배향되어 이제 아산역사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전통은 오늘날 아산역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기에 앞으로도 계속 재조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잠야 박지계 문인록

성명	자/호	생/몰연대	관직	인척관계	비고
李義吉	方叔/亮谷	1596(선조29)/ 1633(인조11)	참봉	李澮의 조카, 모는 恩津宋氏 장사랑 宋權壽의 딸, 金克亨과 사돈	박지계 2형 朴知讓의 사위
趙克善	有諸/洽谷	1595(선조28)/ 1658(효종9)	선공감 첨정, 장령		
權認	思誠/炭翁	1604(선조37)/ 1672(현종13)	승지, 찬선, 한성부 우윤	아버지는 좌랑 權得己	박지계 5형 朴知警의 사위
金克亨	泰叔/沙川	1605(선조38)/ 1663(현종4)	현감	형 金克孚가 李效元의 손서, 李義吉과 사돈	거주지 廣州
權躡	汝章/石洲	1569~1612		한성	정철의 문인
李澮	子淵/龔翁	?~1670(현종11)	개성부유수, 형조판서, 관중주부사	이의길의 숙부 李效元의 자	인조반정에 가담. 靖社功臣2등
元斗杓	子建/灘叟	1593(선조26)/ 1664(현종5)	좌의정	아버지는 지중주부사 元裕男	靖社功臣2등 原平府院君
元斗樞	子中/居業窩	1604(선조37)/ 1663년(현종4)	부윤	원두표의 동생	
洪振禮	文則		副司勇, 主簿	洪振道の 동생, 인조의 이종사촌, 외삼촌이 具宏, 외조부가 具思孟	부 洪憲 형 洪振道, 洪振文이 靖社功臣3등
洪振文	質甫(夫)/	1599(선조32)/ 1653(효종4)	상의원관관, 안산군수, 장례원사평, 면천군수, 청주목사	洪振道の 동생, 인조의 이종사촌, 외삼촌이 具宏, 외조부가 具思孟	부 洪憲 형 洪振道가 靖社功臣3등
金球	子玉	1576(선조9)/ 1613(광해5)	선조39년(1606) 식년시 [진사] 2등 23위(28/100), 생원 3등 3위(33/100), 청주목사	인홍부원군 金鼎男의 아들. 김상헌의 아들 金光燦이 사위	인목대비 오빠, 계축옥사에 죽음
邊虎吉	威如	1593(선조26)/~?	인조2년(1624) 증광시 생원 1등 2위(2/100) 인조12년(1634) 별시병과6위(11/12) 大君師傅, 지평, 장령	박지계의 5형 朴知警의 사위	거주지 인천
邊麟吉	仁徵	1598(선조31)/~?	인조5년(1627) 식년시 생원 1등 5위(5/100) 인조16년(1638) 庭試 병과 8위(14/15) 魚川察訪, 지평	변호길의 동생	거주지 한성 회현방동
李重馨	子薰	1603(선조36)/~?	인조5년(1627) 식년시진사 3등 21위(51/100) 察訪	부 李師長의 모가 잠야와 사촌 朴乃輝와 처남, 매부간	거주지 仁川

閔光燾	景明	1610(광해2)/ 1670(현종11)	인조13년(1635) 증광시 생원 3등 20위(50/100) 효종2년(1651) 庭試 병과1[探花郎]위(03/04) 병조정랑, 사헌부지평, 장령	妻父1 李效元 妻父2 朴知誠	거주지 한성
閔祺壽	仁甫/子必			조부 閔潭이 선조1년(1568) 증광시[생원]3등55위 (85/100) 閔弘俊의 자.	潛治, 浦渚 양인 門生. 신창에서 趙克善과 깊이 교류. 거주지 新昌
趙松年	汝後		宗廟署令, 금산군수	靜庵 高孫子 洪禹瑞의 外祖, 申弘望과 교류	
趙錫馨	子復(服)/ 近水齋(軒)	1598(선조31)/ 1656년(효종7)	인조2년(1624) 증광시 [진사] 1등 壯元, 세마, 侍直 병자호란 후 不仕	부 趙希逸 광해군 때 유배되었던 아버지를 따라 배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냄 金尙容의 손서 林泳 (1649~1696)의 외조	거주지 한성
李中吉				李義吉의 동생	
朴承休	子美	1606(선조39)/ 1659(효종10)	인조8년(1630) 식년시 [진사] 2등21위(26/100) 효종1년(1650) 증광시 병과1위(11/33) 執義	朴忠元の 증손 조극선의 外弟	거주지 한성
朴乃輝	汝章			李師長의 사위, 朴載輝의 동생	처부 이사장의 모가 박지계 4촌
朴載輝	汝彬	1592(선조25)~?	인조5년(1627) 식년시[생원]3등11위 (41/100) 參奉	朴乃輝의 형 부朴源, 行重林道察訪	거주지 한성
李浚	子源			李灝의 동생	
李斗揚	伯瞻		옥천군수		
權訖	无妄		현감	權諤의 형 권득기의 4자	
李瑬			참봉	서화담 외손	
權士吉	吉哉		不仕		處士
朴日省	學魯		說書, 判校		
宣若奉	敬甫	1596(선조29)~?	인조11년(1633)식년시[생 원]3등4위(34/100) 현종6년(1665) 온양정시(溫陽庭試) 丙科 6위(08/09) 工曹佐郎		거주지 온양
李世馨	汝薰				거주지 인천

崔峴	白也	1585(선조18)/ 1645(인조23)	광해2년(1610) 삭년생원시48/100	부친 崔東立	거주지 한성, 南陽
崔嶧	嶧如	1582(선조15)/ 1625(인조3)	광해8년(1610) 증광생원시30/100 광해13년(1621) 별시병과18위(22/40)인조1 년(1623) 개시 병과 4위(13/24)	부친 崔東立 權得仁가 묘갈 지음	거주지 한성, 南陽
李長馨	子遠				
宋國龜	士元/愛蓮堂		郡守	霽月堂 宋奎濂의 從叔, 宋國準의 6촌	
宋國準	平仲	1588(선조21)/ 1651(효종2)	인조2년(1624) 증광시 [진사]3등47위(77/100) 인조5년(1627)삭년시병과2 0위(30/34). 정랑, 양양부사	宋權壽의 손자, 부 宋希得, 李義吉의 외사촌	거주지 한성
李泌	子長			李漣의 弟	
閔光尹	子美	1603(선조36) ~?		박지계 사위 閔光燾의 仲兄	거주지 한성
李禮吉	季立				

[참고문헌]

- 金永炫, 1996, 『朴知誠의 家系와 定遠君 追崇禮』, 『韓國史의 理解: 重山 鄭德基博士華甲紀念』, 景仁文化社.
- 김용흠, 2006, 『잠야(潛治) 박지계(朴知誠)의 효치론(孝治論)과 변통론』, 『역사와 현실』 제61호, 한국역사연구회.
- 柳初夏, 2003, 『潛治 朴知誠의 사상과 현실대책』, 『道山學報』 9, 道山學術研究院.
- 李迎春, 1990, 『潛治 朴知誠의 禮學과 元宗追崇論』, 『청계사학』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 李賢珍, 2003, 『17세기 전반 啓運宮 服制論 - 金長生·朴知誠의 禮論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49, 서울대학교 人文大學 國史學科.
- 박종천, 1998, 『仁祖代 典禮論爭(1623~1635)에 대한 宗敎學的 再評價』, 『宗敎學研究』 17, 서울대학교 宗敎學研究會.
- 신형수, 2007, 『잠야 박지계 사상의 역사적 성격』, 『조선시대 아산지역의 유학자들』, 지영사.
- 禹仁秀, 1992, 『17世紀 山林의 勢力 基盤과 政治的 機能』,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_____, 1999,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 一潮閣.
- 원창애, 2015, 『조선 왕실 종친 가문에서 사대부가로의 변모-德泉君派 李惟侃 家系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48, 경성대 남명학연구원.
- 이근호, 2010, 『17세기 전반 京華士族의 인적관계망-《世舊錄》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8.
- _____, 2016, 『박세무(朴世茂)의 생애와 경세론(經世論)』, 『尤庵論叢』 9, 충북대 우암연구소.
- 이성무, 2012, 『백현 이경석의 생애와 행적』, 『영의정의 경륜』, 지식산업사.
- 이은순, 1988, 『이경석의 정치적 생애와 三田渡碑文 시비』, 『한국사연구』 60, 한국사연구회.
- _____, 2004, 『이경석의 국정운영과 대외 시국인식』, 『조선시대사학보』 29, 조선시대사학회.
- 전병욱, 2013, 『潛治 朴知誠의 格物說』, 『민족문화연구』 61, 민족문화연구원.

A Study on Jamya, Park Ji-gye's Life and Trace

KIM, Il-hwan*

Jam-ya, Park Ji-gye had not only a regional connection with Gyeonghwajasajok faction (noble families living both in and around Hanyang) based on Bansongbang, outside Seoul's Donuimun Gate, but also had a political connection with Seo-in party. He returned to his home in Seoul after having moved around Jecheon and Goesan for 12 years due to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However, during the reign of King Gwanghaegun, he moved to Shinchang, Chungcheong-do Province, in order to avoid the dictatorship of Daebuk faction and repeated political noise in administration. In the meantime, he moved to Namyang, Gyeonggi-do Province for a while, but he lived in Asan for the rest of his life. As a result, his descendants have still lived in Asan to this day.

From a young age, Park Ji-gye refused to hold an official position and lived a life of a moralist enthusiastically devoted to the study of Neo-Confucianism for the rest of his life. Even after moving to Shinchang, he actively interacted with his longtime friends, Kwon Deuk-gi and Jo Ik, immersing himself into an academic research on Neo-Confucianism. Meanwhile, many literary scholars and followers, including Jo Geuk-seon, were constantly raised in ceaseless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which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stablishing the tradition of Confucianism in the Asan in the 17th century and in broadening its foundation.

* Professor, Hoseo University

After Injo banjeong (the coup of 1623), he was respected as Sanlimcheosa (a prestigious officer in nature) along with Kim Jang-saeng and Jang Hyeon-gwang, and was invited to a palace as a renowned scholar to help the new rulers. However, he confronted not only the palace officials but also mainstream scholars such as Kim Jang-saeng over the issues of righteous succession of the King, which arose in the special political situation of anti-government, accordingly, along with issues of funeral related manners and custom.

As a result, he has been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for a long time, making him both admired and envied at the same time. However, his consistent argument on academic beliefs was finally carried out, and the issue of Wonjongchusong(元宗追崇) was decided according to the will of Park Ji-gye.

Park Ji-gye was later enshrined in Ohhyeon-seowon Confucian Academy, that is, Insan-seowon Confucian Academy, now becoming a historic part in Asan. In the 17th century, he newly entered Asan area and contributed to expanding the Confucian tradition and foundation of the Asan region through learning and education and to raising its academic level. Therefore, it is obvious that Janya, Park Ji-gye was the person who laid the foundation for the formation of Neo-Confucianism in Asan in the 17th century. Today, this tradition has become the basis for shaping the identity of Asan, so it should continue to be widely discussed in a long term.

Key words : Park Ji-gye, Asan, Shinchang, theories about manners, funeral-related-custom, Kwon Deuk-ki, Jo Ik